P96

FSGS로 인한 신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한 Spontaneous Spinal Epidural Hemorrhage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장형진 · 최현숙 · 이상주 · 장윤경 · 이진석* · 김석영 · 장윤식 · 방병기

서 론 : Spontaneous spinal epidural hemorrhage는 척수의 급성척수압박을 일으키는 매우 드문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신경학적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Spontaneous spinal epidural hemorrhage의 선행요인으로는 척수마취나 요추 부위에서의 척수액검사 등의 조치나 혈액응고이상, 또는 그 부위의 혈관기형 등이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FSGS 신증후군 환자에서 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을 투여하던 중 갑자기 급성척수압박 증후군이 발생하여 진단하고 치료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환자는 40세 남자로 16년 전 FSGS로 인한 신증후군으로 빈번한 재발을 보이던 자로 7년 전 외래에서 소실된 후, 최근에 신증후군이 재발된 상태로 소변량 감소와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시 평소보다 4 kg의 체중증가가 있었고, 이학적 검사상 전신부종의 소견을 보였다. 내원시 검사실 소견상 Hb 17.0 g/dL, BUN/Cr 22.0/1.54 mg/dL, Total protein/albumin 3.1/1.3 g/dL, Total cholesterol 513 mg/dL, TG 227 mg/dL, HDL cholesterol 34.4 mg/dL, 소변검사상 요단백 (++++)을 보였다. 8병일에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하여 FSGS임을 확인하고 10병일에 steroid pulse therapy를 시작하였고, 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입원 12병일에 환자가 갑자기 하지의 감각이상과 통증으로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입원 13병일에는 경도의 운동장애가 발생하였고, 15병일에는 운동장애가 더욱 악화되어 척수의 MRI를 시행하였다. 척수의 MRI상 D12부터 L3에 이르는 epidural hematoma와 이로 인한 척수압박이 관찰되어 입원 16병일에 본원 신경외과에서 hematoma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약 120여일의 재원기간 중 운동장애는 완전회복이 되었으며, 수술 후 7주만에 재검한 척수 MRI상 이전에 보이던 hematoma와 척수압박이 완전히 소실된 소견을 보였다. 135병일에 경도의 감각이상만 남고, 신증후군의 부분관해와 급성신부전의 회복 상태에서 퇴원하여 현재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결 론 : 전세계적으로 척수부위의 Spontaneous epidural 혹은 subdural hematoma로 인한 척수압박증후군을 보고한 예들에서 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의 사용과 관련된 80예의 대부분이 척수천자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Spontaneous epidural hematoma가 발생한 것은 1예가 보고되어 있다. 본 증례는 매우 드문 신경외과적인 응급질환이 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을 사용하던 신증후군 환자에서 발병한 경우로서 신경학적으로 매우 좋은 경과를 보인 예이다. 신증후군 환자에서 혈액응고이상과 관련하여 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의 유용성은 잘 알려진 바이나, 본 증례는 드물기는 하나 매우 위중한 합병증의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고지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